

켄텍에 불어오는 ‘희망 바람’ …새정부서 동반도약 꿈꾼다

공석인 총장 선임 기대감·예산 복원 등 운영 정상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에너지 고속도로’ 전략적 허브 될 것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해법을 제시하고, 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기 위한 포부를 드러냈다. 특히 켄텍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때 윤의준 초대 총장이 사퇴하고 정부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되는 등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새 정부를 맞아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는 등 운영 정상화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켄텍은 25일 나주시 빛가람동 켄텍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에서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설계 단계에서 켄텍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 등을 소개했다. 이날 김승완 켄텍 에너지정책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정책을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데, 켄텍이 에너지 분야에서 산·학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5대 핵심공약으로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에너지고속도로는 오는 2030년까지 서해안의 해상풍력 발전력 20GW(기가와트)를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산업 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지로 송전하며, 2040년에는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해 전국 각지로의 원활한 전력 송전망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켄텍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발맞춰 ‘K-그리드 테크’ 기술을 적용해 ‘해상 송전망’ 설계 단계에서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송전망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의 산업·기술 등을 포함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할 인프라”라면서 “정부 에너지 분야 정책 실현을 위한 방법이 켄텍의 6대 핵심 연구 분야(에너지AI,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수



올 11월 준공을 앞둔 ‘연구 1동’(왼쪽)과 건축 중인 ‘도서관·학생회관’(오른쪽).

소 에너지, 환경·기후 기술, 원자력 에너지)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켄텍이 새로운 정부의 전략적 허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켄텍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학 운영도

정상화 수준에 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켄텍은 지난해 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1인당 연구비가 5억 2000만원으로 전국 3위 수준을 기록했고, 발표한 논문 1편당 효율성을 나타

내는 평균 IF(Impact Factor)도 9.11 등으로 에너지 분야 연구에서 큰 성과를 냈음에도 전 정부 집권 당시 정부 출연금이 250억원에서 50억원까지 축소됐고, 올해 예산으로 제출한 200억원마저도 절반인 100억원이 삭감되는 수모를 겪어왔다.

특히 켄텍을 대표하는 총장마저 윤의준 초대 총장이 자진사퇴한 뒤 1년 6개월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등 ‘잔 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켄텍 예산 100억원을 포함하면서, 켄텍은 현재 건축 중인 대학 캠퍼스 완성 및 장학생 제도 활성화, 산업클러스터 단지 유치 추진 등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켄텍은 오는 11월 ‘연구 1동’을, 내년 8월에는 ‘도서관·학생회관’을 비롯해 오는 2027년까지 ‘연구 2동’, ‘중장기 시설’ 등을 모두 준공할 계획이다.

박진호 한국에너지공단 총장직무대행은 “켄텍은 에너지 특화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겸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 하이브리드 차량·전남 김, 5월 수출 실적 전인

수출액 전년 동월비 11.0% 감소
수입액 더 줄어 14억여 달러 흑자

광주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남 김이 미국의 ‘판세 충격’에도 굳건히 5월 수출실적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하이브리드 차량(+88.6%)과 김(+17.9%)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

광주·전남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11.0% 감소한 50억 1000만 달러에 머물렀지만, 수입액이 18.9% 줄어 35억 6000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의 관세 여파에도 14억 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는 자동차, 반도체, 공기조절기·냉난방기기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냉장고, 산업용 전기기기,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광주지역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디젤 차량, 기타 화물자동차 수출이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 88.6% 증가하면서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해 6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역시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 4월(60.5%)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남은 김(17.9%), 수산가공품(14.4%) 등 수출이 증가했지만 곡류(-40.5%), 조개(-9.4%) 등이 감소하면서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던 농림수산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7% 줄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내림세 지속과 글로벌 시장 내 공급 과잉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석유제품 14.2%, 석유화학제품(MTI 21) 33.2%가 감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농어촌공사 임직원 400명 ‘청렴 라이브 교육’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4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에서 임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청렴 라이브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 교육 정책에 발맞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과 제도 관련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든 맞춤형 교육이다. 교육에서는 한유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법령의 취지와 기준을 설명했

다. 특히 현장의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실무자가 업무 중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렴 연극 등 문화 콘텐츠도 구성해 임직원의 집중도와 교육 효과를 높였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은 단순한 준법 차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며 “전 임직원이 청렴을 조직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일상 업무에서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자영업자 연체율 12.24%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
원리금 연 2600만원 갚아

최근 경기 둔화 여파로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애를 먹는 자영업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지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자주를, 대출 연체는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각각 가리킨다. 업권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3.92%로, 2015년 3분기 말(4.6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0.53%로 비교적 낮았지만, 역시 2013년 2분기 말(0.60%)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였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2015년 1분기 말(2.05%)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이다. 자영업 가구는 유동성 리스크에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16.5%로, 비자영업 가구(24.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자영업 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2900만원 많은 ‘금융순부채’ 상황이었다. 비자영업 가구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000만원 더 많았다. 2023년 자영업 가구의 경장소득(8500만원)과 소비지출(3800만원)은 비자영업 가구(8000만원, 35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자영업 가구가 2600만원으로, 비자영업 가구(1900만원)보다 40%가량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4.9%로, 비자영업 가구(2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큰 상태라는 의미다. 특히 자영업 가구의 3.2%는 자산과 소득 두 측면에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로 분류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 선보인 삼성 ‘비스포크 AI’ 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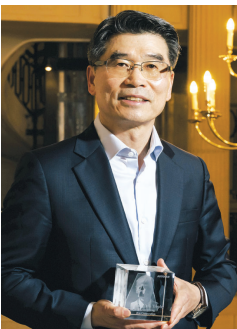


삼성전자 직원이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 참가해 ‘비스포크 AI’ 가전을 선보이고 있다. 17회를 맞은 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는 27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삼성전자 제공>

송호성 기아 사장 ‘올해의 자동차인’

세계 최초 발간 車전문지 선정
정의선 이어 4년만에 수상 영예

세계 최초의 자동차 전문지인 ‘오토카(Autocar)’가 기아 송호성(사진) 사장에게 최고 영예의 상인 ‘이시고니스 트로피’를 수여했다. 25일 기아에 따르면 송 사장은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가 주관하는 ‘2025 오토카 어워즈’에서 ‘이시고니스 트로피’를 수상했다. 이시고니스 트로피는 오토카 어워즈 중 최고 영예의 상으로, 최초의 ‘미니(Mini)’ 모델 개발자이자 디자이너 겸 엔지니어인 ‘알렉스 이시고니스’의 이름을 빌려 지어졌다. 이시고니스 트로피의 역대 주요 수상자는 2014년 론 데니스 맥라렌 회장, 2018년 도요타의 도요다 아키오 사장, 2019년 디터 제체 다임러 회장, 2020년 하칸 사무엘손 볼보 CEO, 2021년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2024년 루카



데 메오 르노 그룹 CEO 등 세계 자동차 업계를 이끈 인물들이다. 송 사장은 기아 사장 취임 전 글로벌 운영 책임자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해외 사업 운영 전문성을 쌓아왔다. 송 사장의 리더십 아래 기아는 2024년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한 EV9과 2025년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한 EV3 등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을 출시하며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 한편 오토카는 1895년 세계 최초로 발간된 자동차 전문지로, 영미권 독자 외에도 온라인판, 국제판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한 매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은행 소부장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광주시·기술보증기금과 협약

광주은행은 25일 “광주시, 기술보증기금과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수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재·부품·장비 업종 등 광주 지역의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1억원을 특별출연해 협약 대상 기업에 1년간 연 0.5%의 보증료

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최대 200억원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광주시는 2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지역 소재 기업이 금융조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기반 강화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국내 500대 기업 본사 광주·전남 14곳 불과

10곳 중 8곳은 수도권에 집중

대기업 본사 소재지의 수도권 밀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00대 기업 본사 10곳 중 8곳은 수도권에 밀집한 반면 광주·전남지역에 본사를 둔 500대 기업은 14곳에 그쳐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 중 284곳(56.8%)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500대 기업은 광주 금호타이어, 우미건설, 전남 한국전력공사, HD현대삼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바스프 등

14곳뿐이었다. 인천·경기는 101곳(20.2%), 부산·울산·경남은 46곳(9.2%), 대구·경북은 23곳(4.6%), 대전·충남은 21곳(4.2%)이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08.25 (+4.61)
↓ 코스닥	798.21 (-2.72)
↓ 금리 (국고채 399년)	2.460 (-0.001)
↑ 환율 (US D) 〈오후 4시 35분 기준〉	1362.85 (+2.65)